經濟社會발전과 科學보도

「좋은 社會」위한 예측과 감시기능의 강화

李 光 榮
〈한국일보 특집과학부장〉

◇과학보도와 경제사회발전

과학보도의 중요성은 날이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과학보도는 비단 현대생활 자체가 과학과 기술의 산물인 이른바 문명의 이기가 핵을 이루고 있다는 점 말고도 오늘의 경제와 사회발전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한 나라의 경제 사회발전에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이갈수록 커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83년까지 국민소득 성장율이 평균 8.2%였는데 이중 과학기술의 기여도는 36.6%로 나타나 있다. 나머지 63.4%는 노동(39.0%)과 자본(24.4%)의 기여도로 되어 있다.

1984년부터 1990년까지는 국민소득 성장율을 대략 7.9%선으로 보고 있는데 과학기술의 기여도가 45.5%이고 노동(27.9%)과 자본(26.6%)의 기여도는 54.5% 정도, 1991년부터 서기 2천년까지는 국민소득 성장율을 7.2%로 보고 있는데 과학기술의 기여도는 50.0%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경제성장에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 첫 석유위기가 밀어닥친 1973년 이전만해도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가 20~30%가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1975년을 깃점으로 40%선을 넘어섰다.

특히 제조업분야에서 차지하는 과학기술 진보의 기여도는 더욱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6년부터 1982년까지 제조업분야의 연평균 부가가치 성장율은 16.5%를 기록했는데 이중 기술진보의 기여도는 14%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66년부터 1978년까지 제조업분야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술의 진보가 52%, 일본은 1966년부터 1982년까지 63%를 차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경제사회발전에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이 갈수록 커가고 있음을 잘 나타내 준다.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 주도의 경제사회 발전이 최근들어 큰 벽에 부딪쳐 있다. 낮은 임금과 숙련된 기능에 의존하던 산업구조에 한계를 들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기술개발과 기술혁신 나아가서 첨단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제6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기간중에 우리의 과학 특히 기술수준을 분야별로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해 「중·장기연구개발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2천년대 까지의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천년대 세계 15위 주요 경제국, 10대 교역국

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10위권 기술선진국 구현을 목표로 오는 2천 1년까지 15년간 총54조5천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투자를 1986년 GNP의 2%(1조5천8백억원) 선에서 1991년 2.5%, 2천 1년 3.1% 선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稅制개혁을 포함하는 각종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을 계속 발전시켜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각종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계뿐 아니라 기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빛을 보지 못했던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보도가 뉴스면에서의 비중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개발을 조직적으로 이끌어갈 연구기관만 해도 현재 자그마치 3백73개소에 이른다. 대규모 두뇌집단을 형성한 정부출연연구기관 9개를 비롯해서 국공립시험연구 기관 1백 7개(국립 39개 공립 68개) 기업부설연구소 2백57개와 기업의 공동 투자로 구성된 연구조합이 25개소에 달하고 있다. 또 학술연구를 위한 학회가 1백55개에 이른다. 여기에 1백개의 4년제대학(종합대학 46개, 단과대학 54개)과 1백28개의 전문대가 나름대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다. 또 우리들 생활과 직결된 생활과학에서 생명과학·건강·환경문제·과학교육은 물론 식품·영양·농업·육아·체육·의학·심리학·과학사·신무기·우주개발등 마이크로의 바이러스 세계에서 마크로의 광활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과학보도의 대상과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특히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것은 이들 과학보도의 대상과 영역에 속한 분야만큼 그 발전속도가 빠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과학보도는 그 영역의 계속적인 확대는 말할 것 없고 너무 빠른 발전템포로 해서 파생된 전문가와 비전문가인 일반대중 사이에 커다란 커뮤니케이션 갭을 좁혀주는 일이 새로운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을 정도다.

한편 과학자와 연구집단 속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엔 학문은 자기완성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래서 학자가 하는 일은 일반사람들이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고, 학자는 학문완성이라고 하는 학자의 길을 걸으면 된다고 보아왔다. 이 때문에 매스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학자는 학자가 아니라는 평마저 들었었다. 지금도 이같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학자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요즘은 학문을 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졌다. 모든 학문이 사회와 유리될 수 없으며 더우기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는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된 것이다.

물리학의 量子力學등 순수한 학문이 原子力시대와 核爆彈을 만들어 냈고, 電磁氣學의 연구는 오늘날 半導体와 컴퓨터시대를 낳은 것이다.

더우기 과학기술은 양날을 갖고 있는 칼과 같다. 이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건설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가공할 정도로 크다.

따라서 연구실에서의 초기연구마저도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과학 보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더우기 지금 우리는 情報化사회로의 급격한 탈바꿈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회와 경제의 시스템 자체마저 과학기술의 바탕위에 이룩되고 있다.

SDI가 요즘 큰 이슈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과학기술의 산물이다. 美·蘇의 軍 전략개념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놀 사태가 과학기술로 부터 파생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보도는 과학기술의 특성과 특수성으로 볼 때 우리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과학보도 역사

우리나라 과학보도 역사는 3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과학보도가 본격적으로 눈

을 뜨기 시작한 것은 1957년 3월 1일 한국일보社가 科學部를 설치한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

한국일보社는 첫 과학부의 출범을 놓고 그 역할에 대해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과학은 무척이나 어렵고 딱딱한 분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기자가 과학관계 해설을 쓴다는 것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각 분야의 교수를 자유기고가 형식으로 위촉, 주제에 따라 적절한 전문가의 해설을 싣는 것이었다. 그러나 速報性과 일반 독자의 理解度를 높여야 한다는 신문의 속성으로 해서 부득이 전문기자를 두게 됐다.

聯合新聞社는 1959년 5월 비록 과학보도를 위한 독립된 部는 두지 않았지만 매주 1회 전 2면의 과학판을 만들어 5.16이후 폐간되기 까지 과학보도에 큰 활약을 보였다.

1964년 11월 16일 朝鮮日報社가 과학부를 설치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사의 과학부는 1년을 넘기지 못했다.

중앙일보사는 1966년 3월 1일 정식으로 과학부 간판을 내걸었다.

이 뒤를 이어 1967년 7월 25일 京鄕新聞社가 과학보도를 위해 科學農産部를 신설했다. 과학농산부는 그후 과학부(1968년 4월 1일) 문화과학부(1974년 2월 1일) 생활과학부(1978년 4월 1일)로 이어졌다가 다시 문화과학부(1980년 1월 1일) 생활과학부(1983년 4월 1일)를 거쳐 문화부(1985년 3월 28일)로 과학보도 기능이 옮겨갔다.

서울新聞社는 1968년 8월 1일 과학부를 설치했다. 서울신문사 과학부는 그후 문화부(1975년 1월 31일)로 통폐합 됐다가 생활과학부(1985년 1월 1일)로 부활됐다.

東亞日報社가 과학부를 설치한 것은 1969년 3월 5일. 그러나 동아일보사는 이보다 앞선 1966년 10월 제1기 과학전문기자를 별도로 모집. 1967년 1월부터 인력을 양성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사는 1975년 3월 8일 예산절감을 내세운 기구축소로 과학부를 모든 전담기자와 함께 날려 보냈다. 동아일보사는 다시 1981년 1월 1일 생활문화부를 거쳐 과학부(1983년 1월 1일)를 독립시켰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과학부를 두었던 한국일보사는 과학보도의 기능으로 특집부(1982년 3월 15일)로 병합했다가 다시 특집과학부(1985년 10월 1일)로 그 기능을 되살렸다.

聯合通信社는 1982년 12월 16일 문화과학부를 두었다가 과학부(83년 10월 1일)로 독립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經濟紙에서도 과학보도를 위한 전담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韓國經濟新聞社가 1983년 4월 1일 문화과학부를 설치했다. 문화과학부는 그후 과학기술부(1985년 1월 1일)로 명칭을 바꿨다.

每日經濟新聞社는 산업부에서 다루어오던 과학보도를 1984년 11월 1일부로 과학기술부를 창설, 이관했다.

◇과학보도 경향

초기 과학보도의 촛점은 ICBM, 원자 폭탄과 수소폭탄, 인공위성 등에 쏠렸다.

1957년 10월 4일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지구궤도에 올려 놓아지자 言論이 우주과학에 보인 관심은 대단했다. 그것도 그럴것이 인공위성 발사 성공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과학적인 업적의 영역을 뛰어넘어 군사와 정치에로의 波及度가 컸기 때문이다.

초기 우주과학에 보인 언론의 관심은 편집제작은 물론 각사의 제도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이 무렵부터 「과학」「생활과학」「생활백과」「과학코너」「과학리포트」 「연구노트」「건강」「건강교실」「건강백과」 등과 같은 고정란이 마련되는가 하면 과학을 전담하는 기자와 함께 전담부의 탄생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우주과학에 보인 언론의 과학보도에 대한 관심은 해를 거듭할수록 뉴스의 대상인 素材는 물론 양과 질적인 면에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1960년대 美·蘇의 본격적인 우주개발 경쟁시대가 펼쳐지면서 동시에 우리 나라에서도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져 갔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1966년 2월)과 과학기술처의 발족(1967년 4월 21일)은 과학보도의 내용면에서 큰 영향을 주었다. 과학교육과 과학정책이 과학보도의 새로운 영역으로 추가된 것이다. 그리고 연구결과가 과학보도의 중요한 뉴스 소재로 등장했다.

우리나라의 과학보도는 이렇게 해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보도가 꽃을 반짝 피운 것은 1960년대 말이다. 좀더 자세히 말해서 1969년 7월 21일 아폴로11호에 의한 인류 최초의 인간 달 착륙이란 역사적 쾌거로 절정을 이뤘다.

그러나 아폴로 11호가 몰아온 과학보도의 열풍은 70년대로 접어들면서 곧바로 식어갔다. 물론 아폴로11호 이후 과학보도의 열풍이 급격히 식어간데는 까닭이 있다. 이와 견줄만한 새로운 과학보도의 대상을 찾지못한 때문이다. 아폴로계획 덕분으로 고정 과학면과 건강면등을 확보해 놓았는데 이 지면을 메울 마땅한 소재를 찾기 어려웠다. 여기에 신문기업의 불황과 예기치 않은 東亞日報사태 등이 겹쳐 과학보도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었다.

아폴로 이후 냉전을 되찾은 우리나라 과학보도의 주류는 우주과학에서 생명과학 특히 건강보건부문으로 넘어갔다. 일반국민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 건강과 장수에로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심장 이식수술(1967년 12월 3일 南아프리카 케이프타운 그루트 슈르병원의 크리스찬 버나드박사팀) 한국 최초의 콩팥이식수술(1969년 3월 25일 가톨릭 의대 李容珏박사팀) 성공 등으로 이어지는 굵직한 이슈가 계속 터져나온 덕분이기도 하다.

한편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과학보도는 취재의 대상범위가 점점 다양화돼 갔다. 국가의 과학기술진흥정책에 따라 새로운 연구기관이 속속 신설되면서 산업계가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과학보도의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됐다.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와 자원문제가 과학보도의 주요소재로 부각되는가 하면 「제3의 불」原子力의 평화적 이용, 다시 말해서 원자력發電과 放射線이용, 綠色혁명을 불러온 품종개량과 신품종 育種, 전자공학과 반도체 및 컴퓨터, 遺傳공학에서「제3의 물결」情報化社會에 이르는 첨단과학기술이 모두 과학보도의 새로운 영역이 된 것이다.

과학보도는 이렇게 해서 아폴로시대의 과열기와 아폴로 이후의 냉각기를 거쳐 본격적인 틀을 다지게 되었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과학보도는 내실이 있는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에 과학과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진 때문이다. 정부가 제6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 계획을 과거 수출주도에서 기술주도로 방향을 틀었고 연구개발비의 대폭적인 증액과 과학과 기술교육에 주력하는 교육정책을 적극 펴나가는가 하면 기업은 기업대로 명목만의 기술개발투자를 실질투자로 전환한 것이다.

◇외국의 과학보도

좀 오래된 일이긴 해도 1977년 4월 필자는 뉴욕에 자리 잡고 있는 뉴욕타임즈사를 방문한 일이 있다. 12명의 쟁쟁한 과학기자들이 일하고 있는 과학뉴스국에 웜스터부국장을 만났는 데, 「과학기자가 정치·경제담당 다음으로 인기가 있다」는 설명에 필자는 느낀바가 많았다.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 들려 일본 신문사들의 과학보도에 관해 들어보았다.

朝日新聞社는 견습기자를 일단 지방에 내려가 1~2년간 경험을 쌓게 한 다음 本社로 올라오게 하는데 과학기자가 되겠다는 희망자가 많아 적어도 5~6년 경력을 쌓은 기자 가운데서 엄선하여 과학기자를 선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 과학기자로 발령받으면 △과학교육과 정책 및 공업경제 △물리·우주개발·기계공업 △화학과 의약·생명공학 △의학 및 건강 등으로 대별해서 한 분야에 2년 정도의 경험을 쌓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8년 정도의 경험을 쌓은 연후에 수석기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후 1984년 4월에 들은 얘기로는 共同通信社의 경우 15명의 과학기자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이들중 절반정도는 그야말로 과학부를 지킬 과학전문기자이고 나머지 절반은 훈련과정의 일환으로 배속된 사람들이라 했다. 그래서 밤낮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국내외 과학뉴스를 하나하나 걸러 보도하고 있다는 것. 科學데스크는 정치·경제·사회·외신·문화를 가리지 않고 과학과 연관된 기사를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훈련과정으로 배속된 기자는 대략 3년 정도 경험을 쌓게 되는데 과학부에서 훈련된 기자는 다시 적성에 따라 각 부서로 흩어져 그 부서에서 과학 및 기술과 연관된 분야의 보도에 기여한다. 즉 과학부에서 훈련받고 정치부에 배속된 기자는 국회나 정치쪽으로 흘러나온 과학과 기술관계 기사를, 사회부에 배속된 기자는 보건이나 수사과학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를, 경제부에선 경제부처 산하기관과 단체의 과학기술관련 보도를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1985년 7월 캐나다의 과학기술계를 순방하는 길에 토론토에 있는 캐나다 제일의 전국지인 글로브 앤 메일 (The Globe and Mail) 社와 오타와에 있는 로칼페이퍼인 시티즌(The Citizen) 社를 방문한 일이 있다.

글로브 앤 메일사엔 과학담당 전문부서는 없지만 전문기자가 있었다. 매주 1회 과학특집판을 내고 있었고, 보도주제는 대체로 두가지 방법을 통해 얻는다고 했다.

하나는 사회부와 외신부등 각부에서 그날 그날 소화해야할 뉴스성기사를 제외하고 기획기사로 다룰만한 내용의 개요를 보내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담당 편집장인 크리스찬 자신이 전문잡지를 본다든지 과학자들을 만나 기획기사로 다룰만한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라 했다.

시티즌사도 과학보도에 있어서 비슷한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글로브 앤 메일사나 시티즌사가 모두 신문제작 과정에 컴퓨터가 도입되어, 과학담당 편집장의 취재지시와 과학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자신의 책상위에 올려 놓아진 컴퓨터 단말기로 간단히 처리되고 있었다.

캐나다의 과학보도에서 특기할 일은 과학전문기자는 물론 과학관계 글을 쓰고 출판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캐나다과학저술인협회(The Canadian Science Writer's Association)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산하에 상설 과학정보원(Science Information Sources)이란 기구를 두고 과학관계 글을 쓸때 필요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과학보도의 당면과제

현재의 여러 상황으로 볼때 우리의 과학보도는 아직 개척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과학보도와 과학기자라 하면 기자사회에서도 특수한 분야, 특수한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반 신문기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학자가 발견한 새로운 발견과 기술의 진보를 알아듣기 쉽게 소개하는 것이 큰 역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기사는 으레 어렵고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사이에 과학보도 분야엔 큰 변화가 일어났다. 과학과 기술분야에서 찾아낸 새로운 사실이 곧바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연구에서 실용화 단계에 이르는 기간에 옛날에 비해 엄청나게 단축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날이 갈수록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의 산물은 우리에게 좋은 면만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편리한 자동차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왔고 대기오염을 낳았다. 공업화는 우리의 생활을 윤택케 한 반면 폐수등 각종 공해물질의 배출로 생활환경을 더렵혔다.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챌린저호 사고와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이를 웅변해 주고 있다.

또 우리의 생활에도 과학기술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됐다. 개인용 컴퓨터(PC)와 마이크로 오븐등 각종 신기술 제품이 우리의 안방까지 침투해 들어온 것이다. 더우기 최신 기술을 이용한 각종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를 선택하고 사용하는데 새로운 과학과 기술지식을 필요로 하게 됐다.

최근들어 인쇄매체인 신문광고의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소비자들에게 신제품에 대한 구매충동을 일으키기 위해선 단순한 상품 선전만으로는 어렵게 된 것이다. 신제품의 특징과 장단점을 정확히 알려줄 때 상품에 대한 호기심과 구매욕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일은 과학보도의 대상과 영역일뿐 더러 그 설명 자체가 과학보도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보도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보도가 다른 일반 보도에 비해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신문 및 방송제작과 편집자들의 이해부족과 과학보도 일선에서 뛰고 있는 기자자신의 역량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기사라 하면 으레 재미 없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기 일쑤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국민학생으로부터 중학과 고교 나아가서 대학생들의 과학지식과 이들이 과학기술에 쏟는 관심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헤아려 보지 않는다. 과학독자의 수준을 자기자신에 표준을 두어 생각하고 있다. 20년~30년전의 과학교육이 오늘에 비해 얼마나 보잘 것 없고, 그동안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왔는지 헤아려 보지 않는다.

과학독자는 결코 문화나 경제 그리고 외신에 못지않은 많은 독자층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이는 과학보도에 직접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독자가 과학보도의 내용은 말할 것 없고 용어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두고 문의해 오고 있다.

과학보도 일선에서 뛰고 있는 기자자신의 역량도 문제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과학보도의 대상과 영역은 대단히 넓고 광범위하다. 이 큰 영역과 대상을 몇몇 전문인력으로 모두 제대로 커버한다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과학기자의 역량문제는 절대적인 인력부족과 조직 그리고 力學관계에서 오는 것 말고도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회사의 분위기와 타성에 젖어 과학기자가 뉴스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일이 없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각종 관련 서적을 읽고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주 만나 활발한 대담과 토론등을 통해 자신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학보도의 뉴스개발과 창달을 위해서 해야할 일은 많다. 각 언론사에 과학보도를 위한 전문부서를 두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사람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해서 과학뉴스를 개발해야 한다. 과학뉴스의 개발은 과학지면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과학보도의 활성화는 전문인력을 기르고 전문부서를 두되 자체내에서 과학기사의 발굴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자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장차 사회에 어떤 영향과 충격을 가져다 줄는지에 대해 심각히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연구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전념한다.

과학보도는 앞으로 바로 이같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내다보고 보다 좋은 사회를 위해 안내하며 감시하는 기능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과학보도는 대단히 중요한 일로 보인다.

과학기술이 가져다 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예방적인 기능의 과학보도가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보도는 대부분 밝은 미래를 내다본 한쪽

측면만을 강조한 느낌이다.

장기이식시대가 열렸을 때 흥분했으나 이로 인해 야기될 윤리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선 소홀했다. 체외수정에 의한 인공수태도 같은 보도태도다. 이에 따른 윤리와 법, 사회적인 문제는 과학보도의 대상에서 밀려난 것 같은 인상이다. 과학보도는 과학기술이 갖는 양면성을 평가하고 짚어주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사를 어떻게 써야 할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독자의 층과 수준 그리고 취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우리의 실정에서 볼때 쉬우면서도 재미있게 쓰는 방향이 좋을듯 하다. 그렇다고 결코 독자의 수준을 얕게 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독자의 수준은 어느 선으로 잡되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도록 기사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어느선이란 경우에 따라선 전문가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 올려도 좋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일반 독자에서 전문독자에 이르기까지 충족시키는 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말하긴 쉬워도 실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치면 간단치 않다. 그러나 과학기자가 과학기술분야의 기사를 작성할 땐 이런 의식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일반독자와 전문독자의 요구를 함께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과학기사의 작성을 일반기사 작성에 필수요건으로 되어있는 5 W1H (Who, When, Where, What, Why, How)에 1 T (Theory)와 1 D (Data)를 추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T는 꼭 이론이나 원리를 설명한다기 보다 내용자체가 이에 어긋나지 않고 서술적표현, 좀더 나아가서 논리적 표현이었으면 한다는 것이고 D는 수치적이라기 보다 자료적이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물론 꼭 원리나 수치로 나타낸 정보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이때 원리는 역시 가능한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수치는 나열식이 아닌 설명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치를 표나 도표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다.

해 외 화 제

빈대와 AIDS

빈대로 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이 전염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 아프리카 국립바이러스 연구소의 곤충학자 피터 잡스와 스잔 리온즈는 모기와 진드기 그리고 보통 빈대라고 불리는 흡혈성곤충 3종에 대해 AIDS 바이러스를 나르는 능력이 있는가를 조사했다.

이 결과 모기와 진드기는 확실한 것은 밝히지 못했으나 빈대 몸속에서는 AIDS 바이러스가 적어도 1시간은 생존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도 이런 곤충이 감염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각국에서 연구했으나 흡혈성곤충은 감염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발견은 매우 중요한 발견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AIDS환자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어린이들은 1～2%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아프리카의 여러나라에서는 AIDS 환자가 남녀 거의 같은 수이다. 어린이 환자는 나라에 따라 15～20%의 차이가 있으며 그 비율은 매우 높다.

빈대는 아프리카에도 보통 존재하고 있고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면역기능이 낮아서 이 곤충이 운반하는 바이러스의 양이 적어도 감염의 위험은 높은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빈대의 행동범위는 좁지만 가정이 감염원이 되는 경우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Quark〉